꼼꼼한 가채점·점수 변화 관찰…3~5개 지원 가능군 설정을

공동·선택 문항 나뉘며 점수 산출 까다로워져
입시전문 온라인 교육사이트 수시로 모니터링
점수 낮으면 대학별 고사·높으면 정시 공략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8일 끝나면서 이제 대학 입시가 본격화됐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날 공개된 수능 영역별 정답을 확인, 가채점을 진행해 자신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현장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최상의 대입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적에 따라 수시 논술·면접 고사에 응할 것인지,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전략 수립의 핵심은 가채점**=전문가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가 향후 수능 지원전략을 수립·이행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으로 나뉘어 출제되면서 점수 산출이 까다로워졌다. 다음달 10일 수능 성적 통지를 받기 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때 입시전문기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능 풀서비스' 등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된다. 다만 예측 서비스를 한 번만 활용하기 보다는 여러 번 모니터링을 해 자신의 점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성적표를 받기 전이라면 다수 입시전문기관에서 가채점판 형태로 제공되는 종이배치표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3~5개 정도 지원 가능군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성적 발표 후 20여 일 정도 시간 여유는 있지만 대략의 정시지원 '라인'을 설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능 이후 다음달 중순까지 수시모집 전형이 이어지는데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수시지원 대학의 대학별고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능 점수가 높게 나왔으면 정시모집을 적극 공략하는 게 낫다. 수시 지원 대학이 정시 합격권이라면 대학별고사 응시 포기를 고려해 보는것도 전략이다.

◇**수능 반영 유형…유·불리 분석**=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능 성적이 수시 지원 대학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대학별고사 응시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신중해 고려해봐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추가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달 10일 수능 성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일정을 감안하면, 성적 발표 이후 20일간 합격을 위한 지원전략 수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은 내달 30일이다. 이때 대학별 전형 방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잘 반영해 수능 이후 전략을 짜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라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반영 영역 수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 ▲영어 반영 방법 ▲전형요소 및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부여 여부 ▲지정 과목 유무 ▲수능 점수 활용 방식 ▲내신 반영 방식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및 형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수능 체제가 개편돼 수학 선택과목(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 따라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 제한을 변경한 대학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한다.

이때 입시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올해 예상 합격선을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짰다면 마지막으로 원서접수 마감일자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날짜나 시간 등으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시 원서접수는 대학별로 일정이 달라 자칫 다양한 변수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수능' 시기는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을 통한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별 전형방법을 적용해 꼼꼼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와 '실채점 결과 분석 및 정시지원 설명회'를 각각 오는 25일과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국어 작년과 비슷 수학 다소 어렵고 영어 매우 어려워

광주시교육청 수능 분석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국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시교육청 진학팀이 올해 수능을 분석한 결과, 국어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도를 보였으며,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고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고 밝혔다.

진학팀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변별력은 독서 영역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올해 처음 도입된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독서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 읽어내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론해야 할 내용이 많아져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기축통화와 관련된 사회 영역의 13번, 주차를 돕는 영상과 관련한 기술 지문의 16번 문항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문학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비교해 EBS 연계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낯선 작품들이 많아 문항을 해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학팀은 수학의 경우 전년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밝혔다.

진학팀은 "공통영역 교과목인 수학 Ⅰ과 수학Ⅱ에서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에 따른 추론을 잘해야만 해결되는 신유형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 특히 그래프를 유추한 후 연산이 다소 복잡한 문항이 있었던 탓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빈칸 추론 문제에서 도형을 해석해야 해 시간이 다소 부족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어는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진학팀은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 유형 문항들이 대부분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34번 문항은 문장의 길이가 길고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 체감난도가 높았고, 문장삽입 문항인 38번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29번 문항은 대동사를 묻는 2번 선택지가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매력도가 높은 오답이 됐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지문의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어휘의 수준이 높아 체감난도가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진학팀은 "절대평가로 출제되고 있지만, 시험 난이도에 따라 수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영어영역이 미치는 영향력은 작년과 비교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일선 교사와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진학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수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

"선택 유불리 최소화 예년 기조 유지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인 위수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18일 이번 수능 출제 기조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 수준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보는 것으로 국어·수학 영역이 달라진 데 대해서도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따라 수험생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문·이과를 통합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처음으로 계열 구분 없이 치러지며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달라졌다.

이에 관해 위 위원장은 "앞서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국어·수학 선택과목별 응시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문항의 적정 난이도와 변별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과목은 비중이 75%에 달하다 보니 당연히 공통과목에는 고난도 문항부터 다양한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지만, 선택과목도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공통과목이 어렵고 선택과목이 평이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